

“대산항, 서산항으로 명칭 변경에 서산시민 힘 모아야”

전국 10위권 항만 중 읍·면 단위 지명 사용 대산항·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유일



은 대산항과 대산지방수산청 만이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게 지역 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서산시를 지명으로 하는 서산항과 서산지방수산청으로 명칭 변경을 해양수산부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산항과 경쟁항인 평택항과 군산항도 읍·면에 위치해 있지만 국제적 각각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해 항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항만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해야만 그 지역 배후 도시를 대표하고 항만권역내 경제권 규모와 수용력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항만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선박의 기항지로 한다.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서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의 잠재적 성장을 도모하고 항만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항만 전문가들도 대산항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글로벌 항만청

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산항으로 명칭 변경이 필수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산항 명칭에 반대하는 대산읍발전협의회와 대산읍 단체들이 있지만 서산시의 발전과 대산항을 국제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대세력들의 절대적인 양보가 필요하다는게 지역민들의 중론이다.

시민 A씨는 “대산지방수산청이 서산지방수산청으로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하루라도 빨리 명칭을 변경해서 대산항의 역량강화를 시키려는 18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브랜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산읍 지명보다 인지도가 높은 서산시를 지명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읍 단위 지명이 아닌 지명도와 인지도가 높은 지방자치를 지명으로 하는 변화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해양수산부가 받아 드려 명칭 변경에 앞장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산=김정한기자

지난 1991년 10월 건설된 충남 서산시 대죽리에 위치한 대산항이 무역항 지정 3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읍단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국제항에 걸맞는 명칭으로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산항은 연간 87만톤 이상 수출입화물을 처리하는 대한민국 6대항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1982년 대산출장소 명칭을 이어받아 대산지방수산청과 대산항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대산항과 대산지방수산청을 읍단위 지명을 사용할 때마다 국·내외의 인지도가 미야하되며 서산항으로 명칭을 사용해 항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대산항은 현재 전국 31개 무역항 중 전체화물 처리량 6위, 유류화물 처리량 3위를 달성하며 그 위상을 대내외에 높여와 명칭 변경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전국 10위권 항만 중 읍 단위 지명을 사용하는 항만과 지방수산청

민주당 충남도당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복구 대책특위 구성

복기왕 위원장 “서천특화시장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은 29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대책 마련을 위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서천시장화재 대책특위)를 구성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대형 화재 상황에서 입주상인 이외에도 주변상권과 서천지역 전체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서천시장화재 대책특위는 ▲위원장에 전의현 충남도의원을 ▲

부위원장에 김아진·이강선 서천군의원을 ▲자문위원으로 나소열·구자필·신현성 보령서천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원에 유승광전 서천군수 후보, 양금봉전 충남도의원 등으로 구성해 활동할 예정이다.

복기왕 충남도당 위원장은 “서천시장화재 대책특위 구성을 통해 향후 서천특화시장이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의현 대책특위 위원장은 “피해 상인들과의 시시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신속하게 파악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 충남도, 서천군 등

민·관(民·官)의 가교 역할로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민주당 홍의표 원내대표가 화재현장을 방문해 지원방안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여기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행안위 문진석 의원, 산업부 박영순, 신영대, 이동주 의원, 지자체장 출신의 농해수위 주철현 의원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유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대책 TF’ 구성해 지난 28일 현장 방문했다.

이정복 기자

‘공주군밤축제 및 알밤박람회’ 흥행 대박… 13만명 방문

일밤박람회 연계 · 축제 장소 변경 등 축제 변화대성공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대한민국 알밤박람회 in 공주’에도 관심이 집중되면서 향후 국제박람회로의 성장 가능성을 염보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눈에 띠는 비즈니스 성과도 잇따라 공주시는 공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공주시 산림조합, 주민조은SF, 세븐일레븐과 지역 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원철 시장은 “올해는 일밤박람회를 전국에서 처음 개최하고 축제 장소도 금강신관광원으로 옮기는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한 행사는 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매우 뜻 깊고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내 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주알밤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밤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겨울철 대표 축제로 거듭나도록 내실을 다지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 곳 우대수수료 적용 받는다

31일부터 적용, PG 하위기맹점·개인택시사업자도 해당

오는 31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 2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원 이하 가맹점(27만 8000개)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27만 1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 6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 대행(PG사)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기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간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 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치액을 환급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오는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기맹점 15만 8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치액을 환급한다.

PG 하위기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선 기자

서산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



與 공관위,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 접수 시작

내달 3일까지… 30일 회의서 공천 심사 일정 발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총 253곳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한은 내달 3일까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따라 공천 신청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출판기념회 정지자금 수수 금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장

거래 명세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 현황 증빙 자료도 내야 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클린선거 지원단'을 꾸렸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천 접수가 되면 적격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한다"며 "클린 선거지원단이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클린선거 지원단" 멤버들

은 변호사 위주로 8명이 준비됐다"며 "(공천이) 접수되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들을 체크해서 공관위에 보고한 뒤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관위는 오는 30일 회의에서

공천 심사 관련 일정을 확정, 발표 할 계획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53개 지역구에 후보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는 굉장히 전략적

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상대방 후보도 보고,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경우에도 좋은 후보들을 내서 비례대표로 한두 명이라도 사람들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협력 의원 '컷오프

(공천배제) 대상 발표를 설 연휴 이후에 할지 물었다 "그때 봐서 하겠다. 컷오프된 분들에게는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학생 위문

서천교육지원청 방문, 화재 피해 학생 가정에 위문품 전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이하 교육위)가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인 29일 오후 서천특화시장과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건강한 일상과 교육회복 지원에 나섰다.

이날 교육위는 서천특화시장에 들러 지난 22일 발생한 화재 관련 피해 현황을 살폈으며, 화재로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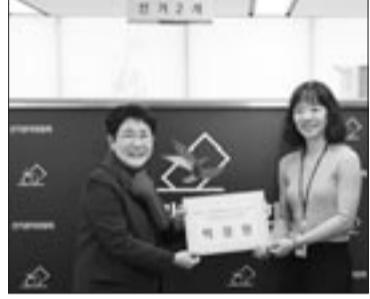
제터전을 없어버린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을 찾아가 화재로 피해당한 서천지역 171가구 29명의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생계에 필요한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노력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학업과 일상에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박정현 최고위원, 대덕구 총선 출마 공식 선언

"대덕이 키운 사람, 대덕을 키울 더 큰 정치하겠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대덕구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

동에 들어갔다.

박예비후보는 등록 후 "윤석열 검찰정권 하에 맞설 강한 애장을 위해, 사람을 살리는 정치,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위해 나섰다"며 총선 승리의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지난 민선 7기 대덕구 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대덕구민의 바램과 요구를 잘 알기에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덕구민의 선택을

이정복기자

류제화 변호사, 세종갑 총선 예비후보 등록



류제화 변호사(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가 제22대 국회

의원 선거 세종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류제화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경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7인 당협위원장에 대한 일괄 시퇴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세종갑 당협위원장직을 수행한 후 예비후보 등록 및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등록을 마친 류 후보는

"그동안 세종갑 정권은 시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쳤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세종시 정권의 판을 갈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한민국 교육 1번지 세종 조성' 등을 위한 공약 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류 후보는 2월 1일(목) 10시 30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1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류예비후보는 버드내 네거리를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가졌다. 그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상처와 안타까움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며 "우리는 안전한 도시를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광문 후보는 출근 중인 시민들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종구의 안전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안전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법안으로, 이를 통해 도시 안전에 대한 강력한 기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광문 후보의 목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날 출근인사에서 이광문 예비후보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도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시 대덕구의회 올해 첫 임시회 막을 올리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나선다.

구의회는 내달 5일까지 8일간 제273회 임시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집행 기관으로부터 실·국별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일반안건 처리 등이 이뤄진다.

특히 주요업무보고에선 올해 역점 추진 과제와 함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 공유될 예정이다.

이 외 함께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야

김정환기자

29일~2월5일 제273회 임시회, 집행기관 주요업무보고 등



대전시 대덕구의회 올해 첫 임시회 막을 올리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나선다.

구의회는 내달 5일까지 8일간 제273회 임시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집행 기관으로부터 실·국별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천안시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대전시의회 전입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2024. 1. 29.(월) 14:30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시의회에 전입한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준에 따랐던 임용장 교부식에서 벗어나 전입 직원들과 친밀화·소통과 공감을 하기 위해 이상배 의장이 제안한 것이다. 시의회에서 새롭게 근무하게 된 6급 이하 직원 12명은 최상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동료 성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사퇴해야"

26일 제265회 천안시의회 2차 본회의 후 기념촬영 현장 성추행 의혹 발생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흥문표)은 29일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회 A 의원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날 충남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6일 제265회 천안시의회 2차 본회의 후 기념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을 거론했으며 "성추자 공직자 신분으로 높은 도덕적 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함에 마땅히 건만 왜 민주당은 계속해서 성 비위 사건 피해자들을 양산하는지 의문"이라고 비

판했다.

이어 "A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양심이 나이있다면 의원직 사퇴는 물론 큰 충격에 빠져 있을 국민의힘 여성 동료 의원과 믿고 뽑아준 것에 대한 실망과 분노에 몸서리칠 천안시민에게 반드시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더 이상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복기자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2024년 의정운영방향과 팀별 주요 업무 보고



당진시의회는 지난 2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의회시무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더 발전하는 의회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고회는 의회사무국 의정운영 기본방향, 2023년 의정주요 성과, 2024년 의정운영방향과 팀별 주

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2023년 의정 주요 성과로는 ▲제2차 대교,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 적극 지원 ▲디양한 연구모임에 대한 우수시책 연구 및 반영 지원 ▲1주년 기념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포함한 21건의 간담회 지원 ▲SNS환경변화와 최신 트렌드를 반

당진=최근수기자

박종갑 의원 "지역기업이 살아야 천안이 산다"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풍세면·광덕면·신방동)은 1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기업이 살아야 천안이 산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노후화 인해 산단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젊은 인력의 취업 기회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 주관 공모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21년 천안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 내

천안=이정복기자

실무형 인재 양성'과 '지역대학과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지원' 등 천안시가 대학과 기업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달라는 요청이 주를 이뤘던 점을 언급하며 천안시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협력하여 천안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천안시는 제조업 4,061개를 포함하여 전체 15,219개의 기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13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천안=이정복기자

인미동 부의장 "장애위험 영유아 위한 특수교사 지원해야!"

장애위험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성구의회 인미동 부의장이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지원 제도 마련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미동 부의장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학생이 가능성이 또래보다 높은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해 언급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에 나섰다.

먼저 인미동 부의장은 "영유아의 장애위험은 인지, 운동, 사회·정서 등 발달 영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며 "치료와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습이나 발달 과정에 지장하는 어려움이 누적되면 동반질환도 같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적기 발견과 치료가 생애주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미동 부의장은 "장애위험 영유아를 돌보는 일련의 일정은 장애통합 어린이집과는 달리 별도의 특수교사가 지원되지 않는다"며 "일반 보육교사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도 및 전문적인 부모상담이 어렵고,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 교사와 부모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초·기본 학력 지원 교육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새해에는 걷는 아이들과 함께 걷고, 한 걸음 늦게 오는 아이들 곁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모두가 특별해지는 아이들의 행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육감은 “올해 세종교육은 기초학력을 보강과 생활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방학 기간 쉼과 배움이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자제를 모아갈 것”이라고 했다.

대전투데이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만나 지난 한해 교육성과와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 2023년 가장 큰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우리 교육청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관계중심 생활교육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최근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가해 경험이 있다는 학생 비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2023년 우리 세종지역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전년 대비 238%나 대폭 감소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등 교사 활동을 활발했던 2019년도와 비교해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크게 줄었다.

학교폭력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만, 혹여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처벌 위주의 응보적 접근보다는 교육적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은 대부분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자인 학생들 스스로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의 관계중심 생활교육이 더욱 필요하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육청 모두 하나되어 공감대가 형성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세종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어드는 편에,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현실이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 변화에 따른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은 물론 학부모 부담 경감, 개별화·맞춤형 교육,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미래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재정을 더욱 투입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새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련하면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세종교육에서 늘 강조되었던 기초·기본 학력 지원체계를 더욱 단단히 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할 것이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초학력향상 정디움 디중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초기 개입과 중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초3, 중1 학년의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현재 5%에서 20%까지 확대하고자 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정다움학습지 원튜터제와 초등 두드림학교를 전면 시행하는 등 모든 아이의 성장을 위한 학습지원교육을 촘촘하게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교실 수업이라는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교육 안에서 우리 학생들의 삶과 성장을 온전히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학 중에 발생하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성장을 위해 방학 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한 종식과 편리한 통학 방법까지 고민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방학 중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하거나 학교마다 세종의 학교들이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에도 교육공동체와 함께 협력을 모으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더욱 광범위하게 학교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모범을 보여왔다. 이제 나아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각각으로 보호하면서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자체를 구현하도록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에도 교육공동체와 함께 협력을 모으고자 한다.

미래교육 변화에 교육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지난 교육활동 기능에 충실히 해야 한다.

이에, 교육행정기관 중심의 조직 역할을 교육활동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 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신설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조직 마련을 위해 조직개편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2024년도 조직개편(안) 마련 시에는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로 학교지원 전담기구 역할을 구체화하고 소요인력은 어려운 인력확충 여건을 감안하여 부서별 기능 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확보하는 기조를 갖고 있었다.

이를 위해 현재 조직분석 진단, 조직운영 개선방안 정책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직분석 진단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공동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모두가 함께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대전투데이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만나 지난 한해 교육성과와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세종의 학생이 자기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하여 사회에서 저마다의 기량을 발휘하고 새롭고 특별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 2023년 교권 침해가 큰 이슈였다. 교권 보호 대책은?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 보호 중심의 제도적인 지원과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은 교권침해 변호사의 법률지원, 학교변호사제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인신번호제 등을 통해 법률자문(소송) 등 교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상담사가 마음치유상담, 마음회복힐링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존중의 약속 만들기(1차), 건강한 교육공동체 회복 방안 모색(2차)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교육 구성원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주체별 역할에 대하여 성찰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MZ 교사 숙의포럼 실행연구 등을 통해 학교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 교권보호 관련 학교변호사 위촉 이후 변호사들의 활동과 지원 등 성과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변

호사제도를 전국 최로로 추진하였다.

학교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학교변호사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교변호사 제도를 더욱 확대 운영해 달라는 학교현장의 요청이 많았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2024년에는 교사가 부분별한 이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학교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세종교육공동체와 시민들께 한 말씀?

2023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많은 도움과 격려에 감사드린다. 2024년 한해도 교육공동체 모두의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2024년은 기초학력 보장, 방학 중에도 멈추지 않는 교육 그리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역량이 함께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주체들의 역량이 커질수록 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종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내가 세종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는 자부심을 모두가 가지기를 바란다.

2024년에도 교육공동체와 시민 여러분께서 응원과 격려 그리고 조언과 비판을 함께 해주시면서 희망찬 세종교육을 만들어 가는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답=이정복 편집부국장·정리=김태선 기자

●정정●

대전 추진본부 출범식 행사



박희조 동구청장 = 30일 오후 2시 30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온기나눔 캠페인 대전 추진본부 출범식 행사에 참석.

대전문화재단 업무협약식



이동한 부구청장(중구청장 권한대행) = 30일 오전 9시 중구청 구민사랑방에서 열리는 '대전문화재단 업무협약식' 참석.

월평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



서철모 서구청장 = 30일 오후 6시 30분 월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월평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 참석.

대전 추진본부 출범식



정용래 유성구청장 = 30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온기나눔 캠페인 대전 추진본부 출범식에 참석.

고액기부자 감사패 전달식



최종규 대덕구청장 = 30일 오전 10시 30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3 고액기부자 감사패 전달식 참석.

대덕구 2024 자활근로사업 추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4년 자활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돋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개인별 여건과 능력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지난해 대비 4억 원 증액된 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업 참여자를 작년 월평군 160명에서 25% 가 증가한 200명으로 목표를 세웠다.

자활근로사업은 시장형 4개, 사회서비스형 10개, 청년자립형 1개, 교육형 1개 등 총 16개 사업단을 운영해 폭넓은 근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 자활사업단으로 △ 국수사업단 △ 덕구돌봄 △ 덕구배송 등 3개의 사업단을 추가해 다양화를 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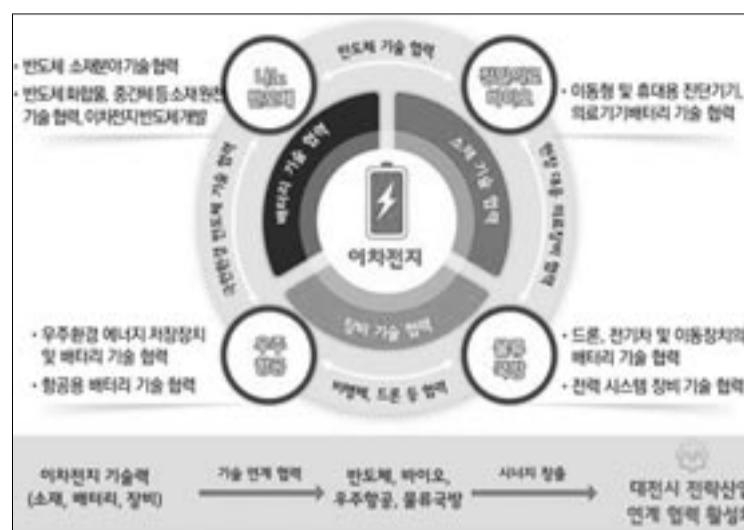
또한 자활참여자가 자산형 성지원 통장에 기입했을 경우 내일 키움수익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돼 만기 3년 후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최종규 대덕구청장은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이 힘들 때 도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와 지역자활센터가 힘을 모아 다양한 일자리와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이차전지산업 기업육성 본격 시동

市, 시비 20억 원 투입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을 발굴·육성하고 체계적인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으로 이차전지 산업 분야의 혁신 역량을 보유한 선도 기업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타 시도 대비 대전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자생적 생태계 조성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운영 및 온오프라인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사업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전 세계적 친환경, 디지털 정책에 따라 이차전지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지난해에 '대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관 이차전지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하여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 실장은 "앞으로 이차전지산업 분야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을 기속하겠다"라며 "대전시 4대 전략산업과 이차전지산업의 연계를 통한 동반 성장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대전농협 노·사 대표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수급 상황 살펴

농협대전본부 노사 대표 김영훈 본부장과 권희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대전지역 위원장이 29일 설 명절을 맞아 농협 대전공판장을 찾아 농산물의 수급 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새벽 경매 현장을 둘러보며 시과·배·배추·무 등 주요 설 성수품목 출하 물량 및 경락시

송병배 기자

동구, '대청호 건강스토리를 입히다' 책자 발간

정보문의(QR코드)에 음성·수어·자막 해설 담고, 시각장애인 위해 양각으로 제작



용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며, 책 내용을 정보부녀(QR 코드)를 통해 음성·수어·자막 해설로 제공한다.

또한 표지의 제목과 정보부녀 안내문은 접자로도 함께 표기했으며 정보부녀는 양각으로 제작해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앱(APP)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16개 동 64명으로 구성된 주민원장대가 2017년부터 대청호 오백리길을 걷고, 보고, 느낀 총 길이 23.79km의 7개 코스, 13개 지점에 걸친 건강·생태·문화·예술·역사·이야기와 건강 정보를 담았다.

구는 책자 700부를 전국 지자체와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며 공공누리에 등록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선 기자

를 만들고 공유하는 형태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일로 책자는 이규승 동구보건소 전문경력 관이 주도해 제작했다.

이는 지역 사회가 함께 스토리

수 있도록 했으며 추후 건강스토리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할 계획이다.

이상용 대전시 시각장애인 연합회장은 "장애인복지는 블립도록 발전했지만 전국적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극이 줄길 수 있는 책은 거의 없다"며 "책은 정보에 목말라 있는 지역 내 시각·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대전을 방문하는 시각·청각장애인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책자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대청호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인 및 출렁형 지원을 통해 건강·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진심동행' 바로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대전청년새마을연합회

설맞이 사랑의 온기나눔 추진

대전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정윤조) 회원 30여명과 이경원 시협의회장, 남희수 시부녀회장, 동구새마을회 단체장 및 배진호 전국청년연합회장은 지난 27일 대전역 광장에서 설맞이 사랑의 온기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대전역 광장 주변의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차와 청년 회원들이 직접 만든 수제 쿠키를 나눠주며 사랑의 온기나눔을 실시하고 대전역 주변 출렁동 병행 실시했다.

대전청년새마을연합회는 지난 해 6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회원 200여명이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활동, 농촌봉사활동, 탄소 중립캠페인, 출렁동 활동 등 꾸준히 청년 스스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병배 기자



서구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행복한 서구의 미래환경 조성 위한 비전 제시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구청장 대신실에서 2024년 인구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안은

'모두가 행복한 서구 미래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5개년(2024~2028)에 걸쳐 이행할 5대 전략, 15개 실천 과제, 77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기존의 출

산 장려 위주에서 벗어나 전 세대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 특성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신중년과 1인 가구 지원 등 변화한 계층·특성별 지원 정책을 추가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 발굴, 외국인 주민 지원 등 생활 인구 지원 정책을 강화해 눈길을 끌었다. 향후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인구정책위원회

자문을 수렴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인구는 우리 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 요소"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꾹꾹 눌러 밀고,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으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市,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본격 추진

대전시는 시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3월까지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은 기존 대전시 공공 기관 인프라에 지역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이 직접 신기술을 체험하고 사업화로 창출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담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전형 MaeS 구축을 위한 AI 기반 연계교통 최적화 서비스(주식회사 노타, 대전교통공사) ▲AI 딥러닝 기반의 실시간 사고 감지 플랫폼 '사고났슈'(주식회사 마이엔, 유성구청)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로 파손 탐지 및 관리 시스템 구축(지엔소프트 주식회사, 유성구청) ▲인공지능 재

활용 PET 무인수거시스템(주식회사 와이티, 대전도시공사) 4개의 과제를 올해 3월 말까지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실증하게 된다.

또한 실증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시민연구반도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지역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하고 사업 아이템 및 기술

총괄하며, 특히 시민연구반은 일반 시민들도 실증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인공지능이 질 높은 시민의 삶을 견인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해 지역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저소득층 자산형 성지원사업 본격 추진

시, 2월 1일부터 '희망저축계좌Ⅱ' 등 참여자 모집

대전시는 2월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 성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자산형 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이 자립·자활에 필요 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복권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우선, 2월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일하는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280만원 이하)이다.

3월부터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40%(4인 가구 229만원) 대상이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인공지능이 질 높은 시민의 삶을 견인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해 지역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자산형 성지원 사업을 통해 대전시 저소득층 기구 및 일하는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인정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고문의

(042)538-3030

●정정●

신설학교 공사현장 점검



김지철 충남
도 교육감 =
30일 오전 10
시 40분 홍성
홍북초 예정
지를 방문해
신설학교 공사현장을 점검, 오후
3시 금산산업고를 방문해 학교
공사현장 점검.

관리사무소 신축 준공식



최재구 예산군
수 = 30일 오
후 2시 예정일
반 산업단지
관리 사무소
신축 준공식
에 참석.

세종시 전략자물 재배 내달 1일부터 신청받아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자물' 지원제' 참여 면적을 확대하고 내달 1일부터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

지난 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략자물 지원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자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보조금이다.

전략자물은 밀·콩·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이다.

올해는 벼를 재배하지 않고 가루쌀, 두류(콩·팥·녹두) 등을 재배하면 헥타리(㏊)당 2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 한다. 조사료는 430만 원, 식용 옥수수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실적에 따라 정부 공공비축미곡 추가 배정과 농기계 지원사업 선정 기점도 부여된다.

직불금은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동계전략자불과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하계전략자불로 구분해 지급된다. 동계작물은 내달 1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하계작물은 내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 전략작물지원제에 참여한 농지 등으로 농업경쟁력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찾아가는 농정시책 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쌀전업농, 축산농가, 농민단체 등에게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유도해 지난해 34㏊에서 올해 55㏊로 전략작물면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예산군 지역 안보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총력

예산군이 비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 훈련을 연 4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군은 장기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을 지난해 5월, 8월, 11월 등 총 3회 실시해 지역 안보를 위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민방위 훈련 유형에는 공습 및 재난 대비 두 종류의 훈련이 있으며, 올해는 재난 대비 훈련 2회(3월, 11월)와 공습 대비 훈련 2회(5월, 8월)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 대비 훈련의 중점 목표는 지역 특성화에 맞는 대비 훈련 실시에 있으며, 지역민 참여를 바탕

김태희 지사, 서천특화시장 상인 지원 '속도'

실국원장회의 통해 지원책 중점 추진 재강조



김태희 충남도지사가 지난 22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각종 지원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연 제48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화재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는 지난 주상가 당 500만 원씩 급금 지원했고, 재해 특례보증지급 200억 원을 상가 당 최대 1억 원 씩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금 모금 계좌(농협 474-01-003445 충남공동모금회)도 운영 중이며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번 화재 때 피해를 면한 서천 특화시장 농산물 판매동에 대해서는 즉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전기·가스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신축 건물을 어떻게 짓을 것인지 등에 대해 내일(30일) 오전 상세히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 달 7일에는 민선8기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 대한 비전 선포식을 천안시청에서 개최한다.

김 지사는 "우리 도가 그리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천

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 시군과 함께 도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추진의 또 다른 축인 경기도와는 다음 달 21일 협력 사업에 대해 합의하고, 총선 이후 경기도지사와 공동 비전 선포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충남의 100년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모든 실국이다 같이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기업,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홍보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저출산(생)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추진에도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횡성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저출산 티에프(TF)를 가동, 지난 25일 청년 공무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소개하며 "그동안 산만하게 추진되던 저출산 정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혼인·출산·아민·임양 제도 개선 등 국가가 해야 할 정책은 국가에 건의하고, 도가 할 부분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거나,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들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충남 방문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신속한

발표와 드래프트제 적용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했고, 관찰시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부의 2기 지티엑스-씨(GTX-C) 추진 계획을 꺼내들며 "운양온천역·신창역까지 연장이 필요하며, 본선은 지방비 부담이 15%인데 비해 연장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와 노선 연장과 지자체 지분비율 등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밖에 △유관

순상 여성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준비 △스타시도 및 해외 사례

접목 신사업 발굴 주제 △농산물 해외 수출 전국 벤치마킹 및 충남 모델 구축 △청년 관련 통계 확보 및 정책 효율성 제고 △하계 세계대학 경기 대회 경기장 대회 이후

다용도 활용책 고민해 설계 △섬 문화예술플랫폼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도 ·시군 전체 점검 △사회단체와 협업해 농촌 생활쓰레기 수거 모

델 마련 △도내 대통령 에스오씨(SOC) 공약 사업 건설계획 반영 정부에 요구 △도청사 앞 등 현수막 관리 방안 모색 △도비 부임 자체 사업 중앙투자심사 암매이지 않고 신속 추진 △정부 예산 확보 시 우선순위 고민 △구획어업 낚시어선 관련 해법 모색 △예방 감사 추진 등을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정연숙 세종맘카페 대표 새해 첫 아너가입
세종맘카페 정연숙 대표가 세종시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 31호에 기입하고, (왼쪽부터) 박준호(죽기움 대표(세종 23호), 서영석 세종시 한글빵 대표(세종 29호), 최민호 세종시장, 정연숙 대표, 박상혁 세종모금회장(세종 14호), 김윤희 세종 아너 모임 대표(세종 3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산군 저소득층 자립 지원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총력 추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II' 가입자 모집

예산군은 예산 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오는 2월부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5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이 통장 기업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10만원(최대 50만원까지)을 저축하고 자립 역량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기

준 중위소득에 따라 매월 각 30만 원, 10만 원씩 적립된 근로 소득 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금을 지원 받는다.

군은 희망 저축 계좌 II(2월), 희망 저축 계좌 I(3월), 청년 내일 저축 계좌(5월) 가입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희망 저축 계좌 I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족 기준 229만원)의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통장 기업 기간 3년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고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탈 수급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매월 30만 원씩 적립된 근로 소득 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금을 지원 받는다.

희망 저축 계좌 II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족 기준 280만원)의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가 통장 기업 기간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고 자립 역량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매월 10만 원씩 적립된 근로

소득 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금을 지원 받는다.

군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가구가 통장 기업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립 기반 기회와 지역사회 정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비상대응역량 강화 위한 민방위 훈련 연 4회 '정례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해 실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실시될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세종소식, 점자·음성 소식지로 확인하세요"

2월 첫 발간, 시각장애인 등 시정 소식 접근성 높여

예산군이 비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 훈련을 연 4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군은 장기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을 지난해 5월, 8월, 11월 등 총 3회 실시해 지역 안보를 위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공습 대비 훈련의 중점 목표는 행정 및 공공 기관, 학교 등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공습 상황 시 시설 내 경보발령 점검, 민방위 대피소 점검 및 보안,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교육 등을 연계한 현실적인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경찰서와 연계한 차량 이동 통제 훈련을 실시해 유관 기관과의 공동 훈련에 맞는 대비 훈련 실시에 있으며, 지역민 참여를 바탕

이다.

점자·음성 소식지는 세종점자 도서관과의 협업과 점역교정사, 녹음전문가 등 전문 인력 투입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완성된 점자소식지, CD형태 음성소식지를 함께 점자소식지·CD형태 음성소식지를 함께 발행해 시각장애인들이 주요 시정 소식과 수혜 사업, 문화행사 일정 등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점자·음성 소식지는 세종점자 도서관과의 협업과 점역교정사, 녹음전문가 등 전문 인력 투입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완성된 점자소식지, CD형태 음성소식지를 함께 발행한다"며 "소식지의 내용면에서도 주요 시정 소식과 생활정보는 물론 장애인 친화적인 내용들이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점자도서관은 지난 2021년 보람종합복지센터 1층에 개관했다.

현재 도서 열람·대출 서비스는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8231;음성도서 등 대체 자료 제작과 점자교육,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세종시 점자·음성소식지 관련 문의는 세종점자도서관(☎ 044-862-0033)으로 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또 건강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거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시민이다. 다만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1차 모집 규모는 신규대상자 60명이며 서비스는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시는 향후 추가 모집을 통해 올해 총 180명에게 서

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건강증정 일부 달성 등 우수참여자에게는 격려품, 영양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 담당(☎ 044-301-2162, 2170, 2122)으로 문의하

면 된다.

김태선 기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참여해요"

65세 이상 60명 선착순 모집… 2월 말부터 비대면 서비스

세종시보건소(소장 강민구)가 29일부터 '2024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에 참여할 65세 이상 시민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우리/동/네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가족사랑봉사단

설명절 맞이 이웃사랑 실천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가족사랑봉사단은 29일 설명절을 맞이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이운형에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세용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는 “명절이면 더 외로워지는 분들에게 의미있는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이웃사랑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성거읍 여성의용소방대, 설날 맞아

고추장 500g 330개 기증

천안시 성거읍(읍장 오석교)은 29일 여성의용소방대(대장 배형미)가 설날을 맞아 직접 담근 고추장 500g 33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고추장은 직접 담근 것으로 기초수급자, 독거어르신, 차상위계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배형미 대장은 “대원들이 정성들여 만든 고추장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석교 읍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성의용소방대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정성이 가득 담긴 고추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부성2동 통장협의회, 폐적한 거리환경 조성 위해

설명절 맞이 대청소 실시

천안시 부성2동 통장협의회(회장 박유화)는 29일 설 명절 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대청소는 고향 찾는 귀성객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폐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행정복지센터 인근과 노태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박유화 회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여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깨끗한 부성2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자 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마을 대청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통장협의회 덕분에 마을 구석구석이 깨끗해졌다”며 “앞으로도 생활환경이 폐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광덕면, 광덕3리 시작으로…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파랑새 상담창구’ 운영

천안시 광덕면(면장 송재오)은 29일 광덕3리를 시작으로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파랑새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파랑새 상담창구’는 광덕면 및 충청북지역에서 월 1회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마을 경로당으로 찾아가 복지·의료 위기기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 상담 외에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혈압·혈당을 측정한다.

신법철 전 국방부 차관, 천안갑 출마 선언

GTX-C 조기 착공·신부 성정역 신설·국방AI센터 유치 공약

신법철 전 국방부 차관이 제22 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전 차관은 2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제 더 떨어질 곳이 없고 정치를 혁신해 국민께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천안갑의 시민과 함께 정치 혁신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 공약으로 교통인프라·일자리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다.

교통인프라 공약으로 ▲GTX-C 천안역 조기착공 ▲신부·성정역 신설 ▲천안1외곽순환도로망 목천-청룡구간 조기 착공 ▲성황



동·불당동 연결도로 조기 착공을 밝혔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GTX-C 노선 천안 연장 확정 발표에 따라 다양한 활용 방안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 AI 센터 유치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특히 GTX-C 노선 천안 연장 확정 발표에 따라 다양한 활용 방안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 AI 센터 유치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AI센터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인큐베이팅 수준이지만 일정 과정에 이르게 되면 민간지역에 유치해야 할 시기이온다”라며 “GTX-C 노선 천안 아산 연장으로 연구 인력의 남방계선이 천안까지 확장될 수 있는 민관 센터 유치로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재육성, 방산 기업 및 연구소 유치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법철 전 차관은 천안 북일고에서 수학했으며, 국방연구원 실장, 외교부 정책기획관, 국립외교원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거쳐 문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을 역임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정

생활보장위원회



박상돈 천안시장
= 30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생
활보장위원회’에 참
석.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0.85% ↑…

천안신부동 빌딩 ㎡당 1102만 원

충남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0.85% 상승했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전국 평균은 1.09%, 충남 평균은 0.85%가 상승했다.

충남에서 아산시와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가 1.64%, 1.24%, 1.12% 순으로 최고 변동률을, 금산군이 0.03%의 변동률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표준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02만 원이다.

가장 낮은 토지는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산35번지로 ㎡당 358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 지적 부서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하면 된다.

천안=김정환기자

‘2024 천안 K-컬처박람회’

공간 참가자 모집

천안문화재단은 2월 5일부터 23일까지 ‘2024 천안 K-컬처박람회’ 전시·판매·체험 공간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4 천안 K-컬처박람회’는 오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되며, K-뷰티·푸드·웹툰 등의 K-컬처산업 관을 비롯한 한글·체험·키즈공간과 포럼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공연을 선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2년도에는 4개의 추진 전략, 8개의 추진 과제, 21개의 세부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은 K-컬처와의 연관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운영방법,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시·판매·체험 공간을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천안문화재단 및 K-컬처박람회 누리집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문화재단(041-521-3414)로 하면 된다.

LG U+ 데이터센터, 재해경감 우수성

인정받아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LG유 플러스(대표 황현식, www.lguplus.com)는 자사 평촌메가센터 인터넷데이터센터(IDC)가 행정안전부 장관 이수민로부터 재해경감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표창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재해 경감활동 관리 체계(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를 평가하고, 이를 행정안전부가 실제로 점검한 뒤 우수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LG유플러스의 평촌메가센터는 사회적·자연적 재난에 대한 위기 관리시스템을 비롯해 기업의 재난관리 전문성, 교육·예산·협력 체계 등이 행안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안부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우수기업 인증에 있어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LG유플러스 평촌메가센터는 우수한 인정성과 신뢰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IDC를 넘어 각 지역에 위치한 통신국사도 인정적으로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행안부의 재해경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지멘스 헬시니어스-천안충무병원, 레퍼런스 사이트 협약 체결

진단검사실 자동화 시스템 ‘애티오 오토메이션’ 관련 타 병원 대상 교육 등 상호 협력



천안시는 29일 서북구보건소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의 경우 이달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 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된다.

이에 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기초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139㎢ 중 약 80㎢에 대해 주거형 43개소, 산업형 20개소, 일반형 151개소, 관리형

142개소 등 총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구역별로 건축물의 허용·불허용도를 정하고, 도로·완충공간·조경 등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기준보다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역주민과 천안시회의 의견청취,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새로이 수립하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및 공장, 주택 등 용도 허용에 따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 택 등으로 건축행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립한 천안시 중장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건강한 내일, 행복한 천안’을 비전으로 간염병 대응역량 강화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맞춤형 건강 천안 실현,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건정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제8기 중장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과 간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등의 내용도 함께 심의·의결했으며, 이는 2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된다.

시는 2024년도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중점적으로 반영할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제8기 중장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과 간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등의 내용도 함께 심의·의결했으며, 이는 2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된다.

동화부문의 뛰어난 기술력을 활용해 향후 더욱 뛰어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 체결식 진행 이후에는 진단검사실 자동화 운영 기동식을 이어 진행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진단검사실 자동화 솔루션인 애티오 오토메이션은 임상화학, 면역학, 혈액학 검사 등 모든 체외진단검사 영역에 적용 가능한 자동화 기술을 통해 검사실의 운영 효율성과 진단검사 결과의 정확도 및 검사소요시간(TAT) 등을 개선하는 토털솔루션이다.

빠르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입상의 및 환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응급 및 중증 질환 환자들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표창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재해 경감활동 관리 체계(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를 평가하고, 이를 행정안전부가 실제로 점검한 뒤 우수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LG유플러스의 평촌메가센터는 사회적·자연적 재난에 대한 위기 관리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W석 일부 구역을 개인 컵비치가 가능한 새 좌석으로 교체했다. 구단 첫 특성화 좌석인 ‘캠핑존’도 오픈한다. 캠핑존은 2인 이용 시 4만원으로 케이터링과 테이블이 제공되며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 캠핑 감성을 느끼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천안시민 협회, 온라인 예매 할인, 측면카드 할인 정책 또한 유지된다.

2024년 시즌권 및 티켓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 및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천안의 2024년 첫 홈경기는 3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충북 청주를 상대로 치러질 예정이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티, 2024 시즌권 판매 시작…구단 첫 특성화 좌석 ‘캠핑존’ 도입

천안시티 FC가 29일 오후 2시부터 2024년 시즌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다.

2024년 천안 시즌권은 VIP, W석, E석, 어린이 4가지 권종으로 운영된다. 시즌권 구매 회원은 2024 시즌권 카드를 지참하면 본인이 선택한 좌석에서 2024년 천안의 전체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별도 티켓 예매 없이 18경기 이상의 천안 K리그2 홈경기 및 FA컵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시즌권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좌석은 구매권종에 따라 달라지며 구단 MD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 천안은 2024시즌 티켓 가격을 함께 발표했다. 올해부터 전 좌석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며, W석은 성인일 경우 현장 구매 시 15,000원, 온라인 예매 시 13,000원에 경기를 관



공주소방서, 동계 수난구조훈련 실시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지난 22일부터 4일간 구조구급센터장 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계 수난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동계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수난 구조 기술 개발과 장비 점검 등을 통해 119구조대원의 전문구조기법 및 상황 대처 능력을 발전시키고, 공주지역 내수면에서의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효율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금산소방서, 공동주택 관계자 소집 안전교육 개최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지난 24, 25일 총 2일간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보령해양경찰서장, 설 연휴 대비 치안현장 점검 나서 김종인 보령해양경찰서장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내 연인사고 취약지와 다중 이용선박 등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양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복한주아인센터, 대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랑의 후원금’ 지정기탁 중구 대흥동(동장 최은)은 행복한주아인센터(시설장 김지원)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업비 성금 50만 원을 지정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계룡버스(주) 임직원일동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368만 원 전달 계룡버스(주) 대표이사 김창중 임직원이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368만 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재우)에 전달했다.

예산소방서, 29일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예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주택용 소방 시설 선물하기’를 29일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집중 홍보키로 했다.

설 명절 고장 집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 시설(소화기, 주택용 화재 경보기)을 선불하여 화재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홍보에 나선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는 주택용 소방 시설은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예산소방서는 군민들이 화재 없는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한 ‘주택용 소방 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예산 상설 시장 및 역 전 시장에서 별인 예정이며, 관내 전광판 및 다중 이용 시설 영상 매체, 플래카드, SNS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박찬수 대응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하고 뜻깊은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희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4월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 대상... 10개 핵심항목 진단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산업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영세기업들을 종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 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들어남에 따라 현장의 허락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

야 기업 지원대책을 종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을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

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당·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맞춰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설 명절 대비 집중

점검 “과대포장 OUT”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6일까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협동으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선불세트로 많이 포장되는 주류, 제과류, 의약외품류, 화장품류 등으로 포장공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분리배출표지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과대포장 의심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선 기자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과연 누가 王이 될 상인가

대회 로고(엠블럼) 선호도 조사온·오프라인 동시 실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 위원회’)는 대회 비전과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의 이미지를 반영한 로고 선정을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2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역대 대회와 차별화된 로고를 개발하기 위해 디자인·마케팅·스포츠 분야 전문가, 4개 시·도 담당자, 조직위 직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약 4개 월의 기간 동안 로고 디자인을 만들었다.

이번 선호도 조사 대상으로 개발한 4개의 후보안은 대회 비전과 충

청권 4개 시도 상징 이미지를 반영하여 최종 후보로 압축된 디자인들이다.

선호도 조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 진행되며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은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충청권 4개 시·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링크 또는 QR 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충청권 4개 시·도 청사(130~131)나 서울역 및 용산역(2.1) 등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선호도 조사 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디자인을 최종으로 확정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회의 상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용환 조직위원회 사업본부장은 “이번 온오프라인 로고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전세계 대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고, 대회 비전과 충청권 4개 시도 이미지가 반영된 디자인이 선정되길 기대한다”며, “2027년에 충청권에서 열리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로고개발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는 대회를 대표하는 미스코트를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로고·미스코트 등 상장볼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청양군 자율방범연합대, 신년 인사회

2024 신년 인사회 열고 군민을 위한 무한 봉사 다짐

청양군 자율방범연합대(연합대장 이면우)는 지난 27일,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원과 내빈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열고 군민을 위한 무한봉사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설을 앞두고 새해 인사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대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열렸으며 유공자 표창, 이면우 대장 공로수여, 우수 대원과 우수대표 표창, 감사패 수여, 위촉장 수여, 연합대장 신년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지역 안전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청양여성지대장 윤복병, ▲운곡지대장 이홍엽

청양=정상범기자

건협 대전충남지부, 설 명절맞이

‘따뜻한 겨울나기’ 보훈기족 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장국진 본부장(오른쪽)은 29일 대전지방보훈청 강민희 청장(왼쪽)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보훈 가족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월남참전유공자 황모씨(84세, 가운데) 가정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정서지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협회는 2002년부터

충남교육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조회 기능 ‘전국 최초’ 구축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대응 강화 및 안전교육·훈련 자료 활용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교 인근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도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조회 기능을 전국 최초로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능은 충남교육청 재난안전관리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로부터 반경 5km 내의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위치·지도와 거리 정보, 취급물질 종류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학교별, 업체별, 지역별 검색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변동 현황을 온라인을 통해 현행화하여 지도·제작·시마다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인근의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편리하게 확인하여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안내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인근 학교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여 재난대응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대응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의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교육과 철저한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당진소방서는 최근 낮은 기온과 함께 밤사이 내린 눈·비가 얼어 발생하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안전수칙 안내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행 시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 하지 않기 ▲운전

하기 전 기상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차 간 거리는 평소의 2배 이상 유지하기 ▲결빙 위험구간 미리 파악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또한 블랙아이스로 차가 미끄러질 경우 핸들을 회전하는 반대방향으로 돌려야 차량이 중심을 잃지 않으며, 브레이크는 한 번에 세게밟으면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나눠서 여러 번 밟아야 한다.

최장일 서장은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고가 연달아 다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분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 11만명에게 약 107억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며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립대전현충원묘역정화 활동 및 유족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등 꾸준한 예우 활동으로 ‘일류보훈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송병기자

서천 화재 피해 상인에 300만 원 추가 지원

道, 재해구호기금 합하면 500만 원 씩...화재 발생 사흘만에 교부 완료

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300만 원 씩 추가로 지원한다.

앞선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과 합하면 5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 안전 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 피해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 지난 25일 서천군에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상가 당 300만 원 씩 총 8억 4600만 원으로, 도와 서천군이 절반씩 부담했다.

지금은 피해 상인이 서천군에 신고를

하면, 군이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하게 된다.

신풍면 도자기안전실장은 "뜻밖의 화재로 삶터가 잿더미로 변한 상인들이 다시 일어서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추가 지원책을 마련, 신속하게 집행을 미쳤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상인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 발생해 23일 오전 7시 55분 진화됐다.

이 불로 서천특화시장 3개 동 227개

점포가 모두 불에 떴다.

김태호 지사는 23일 오전 7시 화재 복구 대응 현장에서 △상가 당 200만 원 긴급 재해구호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용 추가 지원 추진 △·서천군 예비비 투입 임시 상설시장 조성 △소비자 단체 협조 등을 통한 판촉 지원 ▲중앙정부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시장 건물 신축 즉시 추진 ▲경영안정자금 즉각 지원 ▲지방세 및 공공요금 유예 및 감면 추진 등 긴급 지원 대책을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 등에게 서천특화시장 임시 개설과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70억 원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책 발표 하루만인 지난 24일 재해구호기금 5억 6400만 원을 서천군에 지급했다.

이 재해구호기금 역시 서천군이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상인 1인 당 200만 원 씩 지급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서천특화시장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민 성금 모금(동행 474-01-003445 충남도 공동모금회)도 진행한다.

김정환기자



당진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시설 설치비 60% 지원, 2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당진시는 맷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 위해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 소재 경작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업이며, 지원시설은 ▲철선 울타리 ▲철망 울타리(전기 울타리 제외)로 지원 규모는 1,020만 원이다.

지원금액은 시설 설치비의 60%로 1가구당 최대 300만 원이며, 사업 신청은 오

는 2월 1일부터 16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가장 극심한 수확기 전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피해 예방시설 이외에도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사업을 3월 중에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국립한밭대 학습법 특강 집중 주간 '슬기로운 학습생활' 성료

A 활용법 디지털 일정관리 · MBTI 유형별 학습방법 등을 주제로 특강 진행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후원물품

기부 · 환경정화 활동 실시

환경보호국민운동 충청남도 총괄본부는 지난 26일 생수와 라면 각각 50박스를 텅정면에 전달했다. 또한 텅정면 행복키움추진단 단원들과 함께 지중해마을 일대를 청소하며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관리 및 환경보호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이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충남총괄본부(부본부장 전덕배)는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두열 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실천에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리며, 후원 물품은 어려운 이웃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 교수학습센터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재학생들의 학업능력 향

상을 위한 학습법 특강 집중 주간 '슬기로운 학습생활'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의 특강

을 통해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실용 능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본인만의 학습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며 주제적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의 학습법 요구를 파악하여 AI 활용법, 디지털 일정관리, MBTI 유형별 학습방법, 기업유형별 취업 준비를 주제로 선정했고, 3개의 특강은 실시간 온라인 1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특히 오프라인 특강에서는 고려대 세종교육혁신원 김진선 교수를 초빙하여 MBTI 유형별 자신만의 학습법과 학습계획 실천방법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한밭대 김주리 교수학습센터장은 "이번 학습법 특강 집중 주간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의욕을 가지고 자신에 맞는 학습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한밭대 교수학습센터는 지난 12월에도 학생들의 학업동기 확장을 위해 'Merry Learning Day'라는 디지털리더러시 특강과 학생 중심 밀착형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김정환기자

특히, 해외 주화시장에서 십이지신과 같은 동양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중국만 예술형 주화를 발행하는 등 경쟁자가 한정되어 있어, 무역 분장으로 중국의 주화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행자인 풍산화동양행 이재철 대표는 예술형 주화 해외 시장 현황과 국가 상징물을 소재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홍보 역할을 특별히 하는 주요국의 예술형 주화를 소개했다.

미국 독수리, 캐나다 베이블, 중국 판다, 오스트리아 필하모닉 주화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역시 한류문화의 세계적 위상에 힘입어 예술형 주화를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잠재력을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해외의 경우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주화로서 금, 은 등 귀금속을 소재로 발행되는 헤폐이다. 국가적 대표 상징물을 소재로 매년 발행한다는 점과 판매가격이 귀금속 시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기념주화와 차이가 있다.

예술형 주화(Bullion coin)란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주화로서 금, 은 등 귀금속을 소재로 발행되는 헤폐이다. 국가적 대표 상징물을 소재로 매년 발행한다는 점과 판매가격이 귀금속 시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기념주화와 차이가 있다.

예술형 주화(Bullion coin)란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주화로서 금, 은 등 귀금속을 소재로 발행되는 헤폐이다. 국가적 대표 상징물을 소재로 매년 발행한다는 점과 판매가격이 귀금속 시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기념주화와 차이가 있다.

아울러 박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비

조폐공사 예술형 주화 해외사례 시사점 세미나 열려

국내 도입 시 국부 창출 ·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 가능



문산시립후원회 행복 담은 반찬 배달

서천군 문산사랑후원회(회장 김준복)가 지난 26일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의 식생활 개선과 안부 확인을 위한 '행복 담은 반찬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반찬서비스는 폐기불가고, 계란찜, 오징어볶음, 깍두기 등 영양이 있는 반찬으로 구성돼 대상 가정 15가구에 전달됐다.

직접 반찬을 배달한 문산면 맞춤형복지팀은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겨울철 한파 대비 건강 수칙 등을 설명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준복 회장은 "어르신들이 정성껏 만든 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천=김태선기자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www.komsco.com)는 예술형 주화 국내 도입 연구의 일환으로 최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예술형 주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는 해외 예술형 주화 역사와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면서, 예술형 주화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 홍보와 수출 활성화 등 문화산업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주화로서 금, 은 등 귀금속을 소재로 발행되는 헤폐이다. 국가적 대표 상징물을 소재로 매년 발행한다는 점과 판매가격이 귀금속 시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기념주화와 차이가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연 구원 유슬기 박사와 국내 최대 기념주화 유통업체 풍산화동양행 이재철 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했고, 성창훈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했다.

세미나 발제자인 산업연 구원 유슬기

박사는 해외 예술형 주화 역사와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면서, 예술형 주화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 홍보와 수출 활성화 등 문화산업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재철 대표는 예술형 주화 해외 시장 현황과 국가 상징물을 소재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홍보 역할을 특별히 하는 주요국의 예술형 주화를 소개했다.

미국 독수리, 캐나다 베이블, 중국 판다, 오스트리아 필하모닉 주화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역시 한류문화의 세계적 위상에 힘입어 예술형 주화를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잠재력을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해외의 경우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주화로서 금, 은 등 귀금속을 소재로 발행되는 헤폐이다. 국가적 대표 상징물을 소재로 매년 발행한다는 점과 판매가격이 귀금속 시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기념주화와 차이가 있다.

예술형 주화(Bullion coin)란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주화로서 금, 은 등 귀금속을 소재로 발행되는 헤폐이다. 국가적 대표 상징물을 소재로 매년 발행한다는 점과 판매가격이 귀금속 시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기념주화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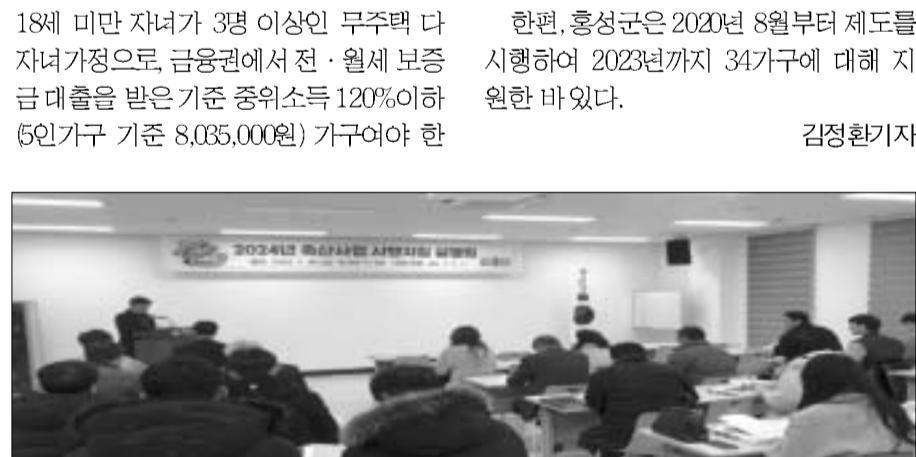
아울러 박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및 유사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난해 11월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종무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연말에 중위소득 수준, 부양자녀의 수, 전년도 미지원 기준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10가구를 선정하여 대출이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흥성군은 2020년 8월부터 제도를 시행하여 2023년까지 34가구에 대해 지원한 바 있다.

김정환기자



아산시 축산사업 시행지침 설명회 성료

아산시는 지난 26일, 아산시역 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 축산사업 시행지침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2024년 축산사업 시행지침 설명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읍·면·동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35명 규모의 114개 축산사업(한우, 낙농, 양돈, 양계, 사슴, 밀, 양봉 등) 지원에 대해 ▲실시요령 ▲주요 개편사항 안내

▲사업관련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실무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성공적인 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산시 축산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 관련 법인 및 단체는 축산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동정

농업인실용교육



박경규 아산시장
=30일 온전9시
농업기술센터에
서 열리는 2024
새해농업인실용
교육에서 특강.

본회의



오성환 당진시장
= 30일 오전 8시,
7층 접견실에서
'월요 티타임'을
주재,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
서 제10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 참석.

신년음악회



가세로 태안군수
=30일 오후 7시
30분 태안문화예
술회관에서 열리
는 '2024 신년음
악회'에 참석.

농업인 실용교육



김돈곤 청양군수
=30일 오전 10시
정산면 행복마을
터에서 열리는 새
해 농업인 실용교
육에 참석.



아산시 통합조사팀 업무연찬 열려

아산시 여성복지과는 2024년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1월부터 2달간 총 5회 업무연찬회(Academic meeting)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연찬회는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6일 제1차 업무연찬회가 시청 상황실에서 담당자 17명이 참석하여 여성복지과 김은경 과장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와 최현섭 주무관의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변경된 사항'을 발표하고 담당자들과 함께 토론하며 업무를 공유했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업무역량 향상은 물론 복지 대상자의 기정방문 실태 조사를 통해 어려움을 경정하고, 공감하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벌금에 힘쓰겠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충족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리량주기자

태안군 탄소중립 실천 앞장선다

착수보고회 열려… 기후 위기 등 능동적 대처 · 2050년 완전한 탄소중립 목표



태안군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세로 군수 및 군 관계자와 용역사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을 아우르는 탄소중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해 말 충남지방행정 정발전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정해 현재 용역에 돌입한 상태다.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태안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54만톤 CO₂ eq ▲2019년 219만톤 CO₂ eq ▲2020년 191만톤 CO₂ eq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기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6억 5400만 톤 CO₂ eq)의 0.3% 수준이다.

배출량은 ▲2018년 254만톤 CO₂ eq ▲2019년 219만톤 CO₂ eq ▲2020년 191만톤 CO₂ eq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기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6억 5400만 톤 CO₂ eq)의 0.3%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군은 향후 발전소 폐쇄를 고려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갯벌식생 복원과 해상풍력발전 유치에도 나서는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탄소중립 전략을 도출하는 한편, 국내외 사례 검토 및 적용 가능성을 파악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쳐 오는 2050년 완전한 탄소중립(Net-Zero)을 실현해 내겠다는 각오다.

보고회에 참석한 기세로 군수는 "기후위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의 탄소중립 기조에 태안군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노로바이러스 확산 주의 당부

당진시, "개인위생 수칙 바로 알고 예방하세요"

당진시보건소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올해 2주 차(1월 7일~13일)에 전국적으로 360명(충남 3명)이 발생하고, 감염 환자가 최근 5년 중 주간 단위로는 최대로 발생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으로 수인성 감염병으로, 감염력이 높아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군 중 하나이다.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저온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

해도 감염성이 유지되며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평균 12~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에 오한, 구토, 설사의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은 24~60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나 대개 48시간 이상 지속되지는 않아 빠르게 회복된다.

음식이나 물에 노로바이러스 오염이 될 수 있고, 감염자의 대변 또는 구토물,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의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다. 소아 감염자에게서는 구토가 흔하고 성인 감염자에게서는 설사가 흔하게 나타난다. 두통, 발열, 오한 및 근육통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으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변기 뚜껑 닫고 물내리기 ▲주변을 철저히 소독하기 ▲다수인 상대 조리사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하지 않기 ▲증상이 나아진 후에도 최소 2~3일 공동생활 피하기 등이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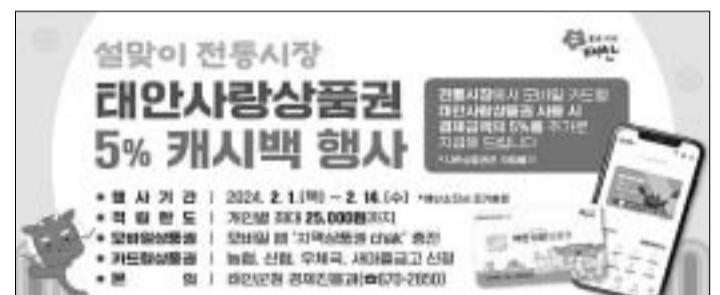
청양군 산야초연구회 연시 총회 열려

청양군 산야초연구회(회장 김정근)는 지난 26일 청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 연시 총회를 열고 올해 주진사업을 논의했다. 60여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2023년 주요 활동 점검과 회계 감사 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임원 선출 등 연구회의 역할과 방향을 재정립하면서 회합과 소통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김정근 회장은 "우리 모임은 공동브랜드 칠갑마루 18개 품목 중 산야초 연구회로서 청정 청양의 산채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회원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품목별 연구회가 발전하고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태안사랑상품권 '캐시백' 이벤트 돌입

관내 전통시장서 모바일 · 카드형상품권 이용 시 5%환급

태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태안사랑상품권 결제금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군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관내 전통시장(서부, 동부, 안면도수산시장)에서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객에 결제금액의 5%를 즉시 지급하는 캐시백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 관내 전통시장의 이용 활성화와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비 2천만 원이 투입된다. 해당 기간 중 모비일이나 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지류형은 제외)으로 전통시장에서 결제 시 구매금액의 5%(인당 2만 5천 원 한도)를 즉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입은 모비일형의 경우 모비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내려받으면 되며 카드형의 경우 'Chak'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농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태안사랑상품권 이용률이 늘어나 설 명절 지역상권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이번 캐시백 행사에 대해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행사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태안사랑상품권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시 음봉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방문 상담 진행

아산시 음봉면(면장 최기호)은 지난 26일,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을 위해 5기구를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했다.

이번 방문 상담은 관내 홀로 지

내는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안부 및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올해 바뀐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안겼다.

방문 대상자 A씨는 "날이 추운

데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말을 들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기호 면장은 "추운 날씨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봉면은 매월 푸드뱅크와 연계해 소외계층에 물품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아산시 '신창 대규모 아파트 입주' 시내버스 신규 운행

아산시(시장 박경규)가 신창면 남성리 ▲신아산모아엘1차 ▲신아산모아엘2차 ▲삼부르네상스 더힐 이파트 입주 시기에 맞추어 2024년 2월 1일부터 이 지역에 대하여 시내버스를 신규 운행한다.

신창 지역의 300번대 8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신창~온양방면을 1일 왕복 505회 운행하며, 신규 아파트 지역을 경유하면서 약 3,000 세대 입주민과 온양방면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성과 통학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창면 지역을 순환 운행하는 마을버스 34번 노선과 환승 연계되어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접근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내버스 77번, 99번, 991번, 순환5번 노선은 일부 시간이 조정되어 운행됨으로써 배차 시간의 정시성 확보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교통수요를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중교통 환경 개선 및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대중교통과(041-540-2582)에 문의하거나, 아산시 버스 정보 시스템(https://bus.asan.go.kr) 또는 모바일 mbus.a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고문의

(042)538-3030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제공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 만의 노하우...

우리/동/네

국권 회복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예우 최선

부여군, 민선 8기 공약사업 ·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6년도까지 20개 구 지원을 목표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국기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복지 향상 등 예우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임

천면 1가구, 세도면 2가구에 대해 육상 병수, 화장실 정비 등을 지원했다.

부여군에 주소를둔 독립유공자 후손 중 선순위 유족을 대상으로 가구당 700만 원 이내로 도배·장판, 화장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사업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9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상담

과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박정현 군수는 “국기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후손들의 영예로운 삶은 국가와 우리 사회공동체 모두의 책무”라며, “앞으로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기리는 선양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보훈 수당 인상, 명절 및 기념일 독립유공자 위문, 애국지사 표지석 사업, 저소득 보훈 가족 밀반찬 지원 사업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부여=김성구기자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실시

논산시, 육군항공학교 비행장 주변 주민 대상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대상은 육군항공학교 비행장 작전 반경에 있는 논산시 광석면과 노성면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다. 소음대책지역 여부는 군소음 포털(mnoise.mi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들이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대상 지역에 거주했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다. 단, 전입 시기, 실 거주일,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 후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연무읍 주민들의 사격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주요 인사와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24년도 육군훈련소 실내사격장 신축비 27억 원을 정부에 신청해왔다.

논산=김태선기자

식량산업 분야 농기계 지원사업 접수

부여군, 생산비 절감을 통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생산비 절감을 통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8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 식량산업 분야 농기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동력설분무기, 이동식 분무기, 전기총전식 분무기, 예초기, 기타 장비 등 소형농기계 602대, 70% ▲법씨 파종기, 논두렁 조성기, 곡물건조기 등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시설 장비 34대, 50% ▲농업용 동력운반차전기·승용형) 구입을 위한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30대, 60%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업용 무인항공기(드론) 9대, 50%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고령농가 및 여성 농가·소농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대농 위주의 지원에서 소외된 농기의 농업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의 영농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해 소형농기계 지원 935대,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시설 장비 28대,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27대, 농업용 무인항공기(드론) 8대, 이앙기 32대, 곡물건조기 17대 총 23억 원 규모로 지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계룡시 코로나19 백신 접종하세요

오는 3월 31일까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여전히 전국적으로 매일 5천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월 9일부터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이 있는 만큼 사전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가능하며, 오는 3월 31일까지 계룡시에 소재한 10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19 신규 백신은 XBB.1.5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HK3, JN.1에도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권고 대상으로는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와 65세 이상은 접종 권고 대상인 만큼 설 명절을 대비해 접종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문의는 관내 희망 의료기관 및 보건소 김염병 관리팀(042-840-3521, 3557)에 문의하면 된다.

계룡=김성구기자

친환경 농업기술 전문교육생 모집

부여군, 미래 대비 친환경 지속농업 발전 기반 강화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미래를 대비한 친환경 지속농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친환경 농업기술 전문교육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친환경 농업기술 전문교육 과정 모집 인원은 25명 내외로 2월 16일(금)까지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친환경 농

업을 희망하는 분으로 부여군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희망 농업 인은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 일정은 6개월 과정으로 2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 실용 교육을 병행 추진 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여군은 친환경 농업 비중이

전체농업의 3% 정도이지만 친환경



경농업은 멀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생태계 보전을 통한 균형발전과 도농

을 이어갈 생명 농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전문 기관 및 전문상담사와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기웅 군수는 “상인들의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심리지원을 통해 정신·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서천특화시장 주차장에서 국립공주병원 충청권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마음 암실버스’를 운영해 스트레스 지수 측정 및 안정화 등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동정

준공식



김기웅 서천군수=30일 오전 8시 30분 군청 4층 주민소통실에서 열리는 서천 특화시장 화재 복구 대응 점검회의에 참석, 오전 11시 군청 문화강좌실 4에서 열리는 2024년 1월 서천군 이장단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 오후 2시 기산면 화산리 244-27 일원에서 열리는 기산면 주민복합센터 준공식에 참석.

계룡-인천공항 시외버스

2월 23일부터 운행 재개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계룡시민 버스 정류장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오는 2월 23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계룡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던 시외버스 노선은 계룡시민의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을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으나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여객 수요가 급감하면서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여객 수요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시민들의 노선 운행 재개 요청이 꾸준히 있었으며, 이에 시는 추후 충분한 이용 수요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해 충청남도와 운송업체에 지속 요구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운행 재개를 이끌어 내었다.

재개되는 인천공항 노선은 계룡(금암)에서 출발해 공주를 경유해 인천공항 1·2터미널에 도착하는 노선으로, 하루 왕복 3편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각각 계룡(금암)발의 경우 ▲오전 5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 10분이며, 인천공항발은 ▲오전 6시 50분 ▲오전 11시 ▲오후 4시 45분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그간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에도 공항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인근 대전이나 세종까지 이동해 버스를 타야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추후 여객 수요 회복 추이를 감안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배차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하세요

서천군 보건소(소장 이문영)가 맞춤형 영양평가와 보증 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부족 등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관리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임산부 및 72개월 이하의 영유아 가운데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부족 등 영양 위험 요인이 있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4인 가족 시 월 458만 4천원이 가능하다.

보건소는 조제분유, 우유, 김, 미역, 검정콩, 쌀, 막걸리, 통조림, 주스, 감자, 당근, 달걀, 복어채, 양배추, 냉육토마토 등으로 구성된 태아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증 식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 1년 동안 매달 1회씩 가정방문, 영양교육 및 상담실 운영 등을 실시하고, 6개월마다 영양 문제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중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천=김태선기자

서천군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마음안심 심리상담실 운영



서천군 보건소가 지난 22일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상인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서천특화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재난회복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한다. 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화재로 재난 트라우마를 겪은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정서적 안정을 위한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검

진 결과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전문 기관 및 전문상담사와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기웅 군수는 “상인들의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심리지원을 통해 정신·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서천특화시장 주차장에서 국립공주병원 충청권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마음 암실버스’를 운영해 스트레스 지수 측정 및 안정화 등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정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최원철 공주시장=30일 오후 2시 공주문화회관 대강연장에서 열리는 202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발대식에 참석.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김동일 보령시장=30일 오전 10시 성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하고, 오후 4시 주교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보령형 포용도시 '시민 온심통(溫心通)' 행사에 참석.

미래인재양성 아카데미



이완섭 서산시장=30일 오전 9시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미래 인재 양성 아카데미 참석, 오전 10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기정) 서산시문화예술단원 융여 중간보고회 참석, 오전 11시 30분에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주)에스제이파워 마스크 기탁식에 참석, 오후 1시 30분에 대산읍 대산복지관에서 열리는 대선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 오후 2시 40분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서산시복지재단 신임이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민인산농협 정기총회



박범인 금산군수=30일 오전 10시 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리는 민인산농협 정기총회에 참석.

2024 치매예방교실 확대 운영



보령시치매안심센터는 인지선별검사 결과 정상군에 속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 '청춘은 바로 지금(청바지)' 기억학교'를 운영한다.

치매예방교실은 치매예방 및 치매발병 시기를 늦추기 위한 인지훈련으로 오는 2월 20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치매 예방 체조 ▲인지강화 훈련 ▲CO-Tips-G 전신화인지훈련시스템 ▲보령시 특화 인지학습지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치매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시기를 늦추는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개선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 노인 우울척도검사 등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검사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교육 전후 변화를 비교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만 60세 이상 보령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오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1기 교육생을 선착순 20명 모집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치매안심센터 ☎ 930-6876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치매발병 예방과 고립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걱정 없는 보령시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령시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상반기 1기에 이어 하반기 2기 교육생(20명)을 모집해 보령시민의 치매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선 기자

MICE 산업 불모지서 중심으로 환골탈태

보령시, 컨벤션·미드체험 결합된 지방도시 최초 하이브리드형 테마파크로 변신 중



지난 2022년 7월 개관한 '보령미드테마파크'는 디수의 국제회의 및 각종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약 243건(누적 행사 참가자 41,520명)의 국제행사와 학술회, 기업체 워크샵 등을 유치하였고, 행사 참가자와

충남수소에너지국제포럼, 탄소중립화산대회, ▲전시박람회(청소년 진로박람회), 인센티브투어 단체유치(주한미군 기족 단체, 주한 인도 단체 등) ▲대형행사(전국기능경기대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JS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흥영만찬)

▲기업체 워크샵(다수의 타 시도 기업 임직원 워크샵 행사) 등 다양 한 MICE행사를 운영 지원하였다.

올해도 그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대한치과보존학회 춘계학술대회 등 대형학술회의 유치 확장하여 개최 예정이며, 컨벤션시설의 디지털화를 통해 시설 경쟁력도 확보하여 보령 MICE 산업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미드관 2층에 K-뷰티·치유관 조성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관광객들에게 미드를 활용한 시계절 피부미용 체험을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드의 도시답

게 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계절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게 된다.

K-뷰티·치유관 운영은 충남도립대(뷰티코디네이션학과와 업무 협약을 통해 미드 뷰티케어 프로그램, 전문인력, 장비 등을 공유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상범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

이사는 "보령미드테마파크가 다양한 MICE 행사를 유치하여 보령의 미아스 산업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올해는 미드 뷰티 치유관이 개관함에 따라 컨벤션과 미드체험시설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복합시설을 완성하여 보령시가 충남의 대표적인 미아스 도시, 웨니스 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서산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원스톱 행정 추진

설치업체 책임성 강화·수질 오염 방지·빠른 문제 해결·원스톱 처리 탁월

오수처리시설 관리 요령

1. 오수처리시설은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세요.
2.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수립하고 오수질 개선을 목표로 대상화하세요.
3. 험자(제3자)로운 관리자는 환경을 확장하세요.
4. 관리를 통해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확장하세요.

오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설치현황	설치면적
설치면적	면적
설치면적	면적
설치면적	면적

전원차단 금지 (상시전원)

*** 비정상 운영 또는 고장 수선 시 제외**

원스톱허가과

▲ 오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및 관리 요령 스티커
▲ 오수처리시설 전원차단 금지 스티커

원을 끼 놓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전원 차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공기 공급 장치 전원을 끊는 경우 하수처리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돼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수수로 인해 인근 하천, 저수지의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시책으로 설치업체의 책임 시공, 시설 운영 요령 홍보, 개인하수처리시설 고장 시 빠른 조치를 통한 수질 오염 방지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부터 운영까지 시에서 책임 있게 관리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책임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책임실명제와 관리요령을 건축주들께서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설명절 연휴 감염병 예방 비상방역체계 조기 운영

공주시, 겨울철 집단감염병 발생 대비 감시 강화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코로나 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감염병 예방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서 운영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

을 위한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감염병 추가 확산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요원이 평일은 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후 5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고 그 외 시간은 상시 연락망을 유지해 24시간 빈틈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경운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

병으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시는 올바른 순서로, 기침에 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우엇보다 시간과 장소 등으로 연관성이 있는 2인 이상에서 설사나 구토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군 "나눔으로 따뜻한 설 명절 되세요"

추부엠마트·금산시니어클럽 한국GSC마켓·금성면적십자봉사회 참여

금산군은 지난 26일 관내 설 명절 나눔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고 밝혔다.

이날 기탁에 참여한 곳은 추부엠마트(대표 강포구), 금산시니어클럽 한국GSC마켓(관장 박미숙), 금성면적십자봉사회(회장 박집숙) 등이다.

추부엠마트는 이날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쓰이길 바란다며 500만 원 상당 당면, 김 등 총 1000세트를 금산군에 전달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군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문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총 기탁액은 2500만 원이다.

김태선 기자

니어 지원 및 인력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

금성면적십자봉사회는 8kg 쌀 50포를 관내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했다. 이날 봉사회원 10여 명이 직접 참여해 쌀을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어려

운 이웃을 위한 소중한 나눔에 나서주신 추부엠마트, 금산시니어클럽 한국GSC마켓, 금성면적십자봉사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운 이웃을 위한 소중한 나눔에 나서주신 추부엠마트, 금산시니어클럽 한국GSC마켓, 금성면적십자봉사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또 화재 대응에 관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불예방과 관련, 박 군수는 산

에 관해 언급했다.

또 화재 대응에 관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불예방과 관련, 박 군수는 산

우/리/동/네

서산시, 2025년 외부재원 확보 선제 공략 시동

2025 외부재원 확보 추진전략 보고회

충남 서산시가 내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선제 공략에 나선다.

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외부재원 확보 목표 금액을 6200억 원으로 설정하고 '2025년 외부재원 확보 추진전략 보고회'를 열어 예산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원섭 서산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5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변동된 사업계획 점검 등이 논의됐다.

계속사업은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150억 원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486억 원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9042억 원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899억 원 등이 핵심을 이뤘다.

신규사업으로는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91억 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40억 원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 113억 원 ▲무형유산 전수 교육관 건립 180억 원 ▲해미읍성전통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100억 원 등이 발굴됐다.

서산시는 논의된 사업들에 대해 보완 과정을 거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성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한편 지역 정치인과의 협력체계 구축에도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원섭 서산시장은 "예산 확보는 역동적인 시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역의 힘자체"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다음 해에 확보할 수 있는 외부재원을 명묘히 파악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마련해 도약하는 서산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등 각계각층과 공조한 결과 지난해 대비 838억 원이 증가한 6105억 원을 확보해 사상 최대 규모의 외부재원을 확보했다.

서산=김정한기자



공주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어여져 '훈훈'

공주시(시장 최원철)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NH농협공주시지부(지부장 황광환)는 지난 2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떡국떡 100상자를 시에 전달했다.

농협공주시지부는 사회공헌 나눔활동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성금뿐 아니라 빅백미, 농산물 꾸러미 등을 기탁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황광환 NH농협공주시지부장은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바라는 마음이며, 앞으로도 시회에 보탬이 되는 나눔과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겠다"라고 전했다.

고길현 대표는 "기부는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기부자 역시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성금으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얻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원철 시장은 "소외된 이웃들을 먼저 살피는 우리 지역의 기관 및 업체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기탁받은 물품과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길현 대표는 "기부는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기부자 역시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성금으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얻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불예방과 관련, 박 군수는 산

불방지대책본부 비상체계 확립, 설 명절 연휴 입산객 인화물질 반입

백석대·백석문화대 소속 교직원들,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

교육부장관상·충남교육감상까지 '수상잔치'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백석문화대학(총장 송기신) 소속 교직원들이 교육부장관상, 충청남도교육감상, 천안시장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 대학은 1월 19일 오전 10시, 교내 진리관 대학혁신위원회장실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상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회장이 대신했다.

백석문화대학 최상철 교수는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부문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력을 발휘해 대학생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백석문화대 도서관 문기은 직원은 '2023년 대학 도



서관 발전'에 기여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장을 받았다.

백석문화대 교무처 이재호 팀장과 백석대

입학관리처 이희준 직원은 '학생 선택 중심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혁신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에 앞장서 충청남도교육감

표장을 수상했고, 백석대 학생처 김종구 팀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천안시장 표장을 받았다.

이밖에도 백석문화대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혁신하고 2023 공동교육과정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장을 받았다. 수상은 유애현 교무처장이 했다.

장택현 대학혁신위원회장은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셨고, 그 덕분에 대학의 이름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격려했다.

천안=이정복기자

공주문화관광재단 '미술작품

가격의 메커니즘' 특별강연 개최

공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타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주 그림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4년 공주그림상집로 시즌Ⅱ로 돌아온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타는 공주시민과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미술시장가 형성과정의 이해를 돋기 위한 '미술작품 가격의 메커니즘'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공주문화관광재단 김지광 대표이사는 "공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그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도시 조성 기간 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미술작품가격의 메커니즘'을 주제로 미술 시가 감정을 위한 모형과 배뉴얼에 대한 강연이 2월 2일 14:00 공주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특별강연은 사전 신청과 현장 참여를 통해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강연은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김영식 이사장의 강연을 중심으로 미술작품 가격,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의 역할에 대해 청취자들에게 중점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공주=정상범기자



경북에 전한 '온정' 2배로 돌아왔다

경북도, 서천특화시장 지원 성금 3000만 원 기탁

충남도는 29일 도청 접견실에서 경북도로부터 3000만 원의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김기영 행정부지사, 신동현 도자치안전실장, 김학중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우리 도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기탁 성금을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접포에 지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대형화재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에게 경북도의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감사를 전하고 성금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2년 3월 월진·삼척 등 동해안 대형 산불 발생 당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성금 1500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김경환기자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올해 정보교육 교원 연수 시작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원장 배우룡, 이하 평가정보원)은 29일 충남부평생교육원에서 충남미래교육통합플랫폼 마주온 담당자 연수를 시작으로 올해 정보교육 교원 연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나담스튜디오, 둔포면 행복기움과 협약 체결

아산시 둔포면 행복기움추진단(민간단장 유영숙, 공공단장 오배한)이 지난 26일, 나담스튜디오 아산점(대표 김종대)과 행복기움 지원사업을 위해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국기철도공단, 일곱 번째 'KBS 스타트업라운지' 안산역에 오픈

국기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원쪽 세 번째)이 안산역에 중소·창업·벤처기업을 위한 공유 사무실 및 회의 공간인 KBS 스타트업라운지를 29일 개소식을 갖고 축하하고 있다.



온양침례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보양식 전달

지난 26일, 온양침례교회(담임목사 김병철)가 온양4동 행복기움추진단 공동단장 우재원·공판석에 끄끈한 심계탕 50인분을 후원했다. 후원한 심계탕은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50가구에 전달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행복청, 탄자니아 총리실과 수도이전 협력 본격 추진

협력 MOU 체결, 한국 기업 신수도 건설사업 참여 교두보 확보



원 초청연수,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소통채널 운영 등 상호 우의 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번 탄자니아 방문은 '22년 10월

마찰리와 총리와 '23년 9월 총리실 사무 차관의 행복도시 방문 이후 마찰리와 총리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에 걸친 일정에서 김

형렬 청장은 탄자니아 총리와의 면담 및 양해각서 체결, 한·탄 수도이전 협력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다지고 한국 기업의 탄자니아 신수도이전 사업에 참여 기회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26일 행복청과 탄자니아 총리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탄 수도이전 협력 공동세미나'에서 신수도 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형렬 청장은 탄자니아 공무

전 협력 공동세미나'에서 탄자니아 정부는 도모마 신수도 개발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 향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 측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희림종합건축, 코오롱글로벌, 한국철도공사, ESE 등이 탄자니아 신수도에 입목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 분야를 소개하며 도모마 건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전달했다. 특히, 희림종합건축은 도모마 신도시 랜드마크 건설 및 MICE(복합전시관광) 산업단지 조성 등 본격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김형렬 청장은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행복도시 건설 경험은 탄자니아의 신수도 개발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탄자니아 총리와의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이 탄자니아 신수도 개발 사업에 꾹꾹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선기자

이택구 예비후보, CTX 노선에 가칭 '둔산역' 추진하겠다 선언

둔산역 [복합커뮤니티시설] 추진



이택구<사진> 예비후보가 CTX 노선에 가칭 '둔산역'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29일 2호 공유으로 CTX 둔산역(가칭)을 신설,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신설해 '상전벽해' 프로젝트의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CTX 사업은 정부가 지난 25일 민간이 투

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가칭 CTX) 선도사업이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기존 대중교통으로 1시간 40분 걸리던 소요 시간이 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세종청사~정부대전청사는 기존 6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CTX는 열차를 수도권 전동차(110km/h)에서 급행 GTx(180km/h)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재정이 아닌 민간 투자사업비 50%·운영비 100%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는 "둔산을 서울까지 연결시

이정복기자

키는 대표적인 CTX출발지점으로 만들겠다"며 "단순하게 서울로 연결시키는게 아닌,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형 쇼핑몰과 대규모지하 주차장, 문화시설 등을 포함된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만들어 누구나 찾이을 수 있는 '둔산'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앞둔 상황에서 CTX 사업 추진은 둔산 신도시의 '상전벽해' 프로젝트를 가속시킬 수 있는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한국타이어 후원 포뮬러 E '2024 디리야 E-PRIX' 성공적 마무리

한국타이어 '아이온' 탁월한 타이어 성능으로 드라이버들의 레이싱 퍼포먼스 극대화 지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수일, 이하 한국타이어)가 오피셜 파트너로 활동하는 국제 자동차연맹(FIA) 주관 세계 최고 전기차 레이싱 대회 'ABB FIA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십(ABB FIA Formula E World Championship, 이하 포뮬러 E)'의 '2024 디리야 E-PRIX(2024 DIRIYAH E-PRIX)' 경기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6일부터 27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시즌 첫 앤레이스(1·3리운드 더

블리더로 진행된 경기를 안정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한국타이어의 포뮬러 E 공식 전기차 레이싱 타이어 '아이온(ION)'은 중동 지역 특징인 사막성 기후의 까다롭고 험난한 조건을 갖춘 '디리야 스트리트 서킷'에서 최상의 타이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대회에 참가한 22명의 드라이버들은 성벽을 뚫려싼 좁은 폭의 21개 곡선 코스와 사막의 모래, 급격한 일교차라는 국한의 주행 환경에서도 '아이온'의 뛰어난 타이어 성능에 힘입어 본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함께 사막이라 는 이색적인 풍경으로 다양한 볼거리가 많았던 이번 대회에서는 포뮬러 E 시즌9 드라이버 챔피언 안드레티 포뮬러 E(ANDRETTI FORMULA E) 소속 '제이크 테니스(Jake Dennis)'와 재규어 TCS 레이싱(JAGUAR TCS RACING) 소속 '닉 캐시디(Nick Cassidy)'가 각각 2·3리운드 우승을 차지했다.

송병배기자

한국타이어는 이번 대회에서도 'FIA 걸스 온 트랙(FIA Girls on Track)' 프로그램의 프리젠톤 파트너로 활약하며 모터스포츠 분야 여성 인재의 참여 기회 확대 및 드라이버 육성에 힘을 보탰다. 해당 세션은 진행하며 여성 참가자들에게 모터스포츠의 다양한 분야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포뮬러 E 시즌 10은 멕시코 개막전을 시작으로 사우디 대회까지 총 3리운드 경기를 마쳤다. 현재 '재규어 I-Type 6(Jaguar I-Type 6)'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니 캐시디'가 총점 57점으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포르쉐(Porsche), 맥라렌(McLaren), 재규어(JAGUAR), 마세라티(Maserati), DS(DS AUTOMOBILES), 닛산(NISSAN), 쿠프라(Cupra), 마힌드라(Mahindra) 등 글로벌 8개 전기차 브랜드들의 치열한 경쟁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daejeontoday.com



금산군 남이면자율방재단, 자연재난·재해·교통사고 예방활동
금산군 남이면자율방재단(단장 육상신)은 지난 26일 진안산 광장 일대를 돌아보며 자연재난·재해·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한국문화전파 나선 목원대·태국명문 고교 대상 한국어 캠프 진행
목원대 국제협력처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태국 치앙마이 하늘미션센터(하늘중앙교회 태국 선교센터)에서 한국어 개설 명문 사립학교인 다라와 카데미(유치원·초·중·고교 600여명 재학) 등 6개 고교 학생 60명과 한국어 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인생 한국, 원더랜드 캠프'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호서대, 아산시 자율방법연합대와 업무 협약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 평생교육원이 아산시 자율방법연합대와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농협 사회봉사단, 대전교육청에 설맞이 '사랑의 떡국 떡' 기탁
대전농협 사회봉사단(공동위원장 이재윤, 권희근)은 29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을 방문해 지역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랑의 떡국 떡' 1600kg(13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기탁한 '사랑의 떡국 떡'은 설 명절을 맞아 대전농협 직원들이 기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마련했다.



적십자봉사회 청양지구협의회, 2024 연시 총회 개최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양지구협의회(회장 성영순)는 지난 26일,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연시 총회를 열어 지난해의 다양한 활동을 평가·결산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사업설명회 개최
충남동부보훈지청(청장 이용기)은 29일 공주지역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보훈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훈사업설명회에서는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보훈사업을 보훈단체장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와 응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건양대 웰다잉융합연구소 '웰에이징 위한 경제교육의 필요성 연구' 등

한국자료분석학회 동계 학술논문 발표

건양대학교(총장 김용하) 웰다잉융합연구소(연구소장 김광환)가 한국연구재단, 주케이스텔리서치, 트랜드리서치, BNK 투자증권, 주GDS 컨설팅, 데이터솔루션, 나이스평가정보, 부경대학교 후원으로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서 25일과 26일 양일간 열린 한국자료분석학회 2023년도 동계 학술논문발표대회에 참가했다.

한국자료분석학회는 1998년 창립 이후 통계학을 기반으로 자료분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관련 학문 분야와의 융합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동계학술논문발표대회는 자료분석이 필요한 다양한 관련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자료분석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학술 활동의 증진과 연구교류의 활성화의 역할을 목적으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통계, 경제, 경영, 보건, 의료, 간호, 교육, 신리, 사회, 재무, 금융, 생존분석, 신뢰성 자료분석, 데이터 사이언스와 통계적 기법, 다양한 측면에서



본 공공데이터의 활용, 신호처리를 위한 딥러닝 및 딥러닝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이 참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건양대 병원경영학과 안상윤·김광환 교수와 치위생학과 김설희 교수가 '웰에이징을 위한 경제교육의 필요성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임효남(건양대 간호학과)·김광환(건양대 병원경영학과)·황해정(건양사이버대) 교수는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교육활동에 대한 웰에이징 교육 전문가의 인식연구'를 발표했다.
건양대 안상윤 교수는 이날 발

표에서 "노인요양복지사업 현장의 교육 담당자 설문을 통하여 노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 해소와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하여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IPA 분석 결과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중요도와 수행 도에서 프로그램 계획 수립이 중점 개선영역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노인계 층의 생애에 걸쳐 경제교육이 절실히이며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효남 교수는 "웰에이징 교육 전문가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의 교육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교육 프로그램 기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항목 분석 결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pool)구성과 교육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가장 교육이 필요한 시기로는 중년기로 나타나 향후, 교육 대상과 교육내용 수립 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웰다잉 융합연구소장 김광환 교수는 "이번 발표는 다양한 학문적 이점을 공유할 수 있는 학문적 교류와 학술 활동의 성장 기회로서 웰에이징 교육대상 다양화 및 컨텐츠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관련 학문과의 융합으로 질적 수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효남 교수는 "웰에이징 교육 전문가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의 교육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교육 프로그램 기획에

이정복기자



논산시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 취임식 및 연시총회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1월 29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논산시농촌지도자연합회의 새로운 회장 취임식과 연시총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회원과 농업기관 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제25~26대 연합회장 이천주 회장은 6년 동안 농촌지도자의 발전을 이끌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제27대 연합회장으로 김종권(66세, 논산시 노성면) 회장이 취임했다. 김종권 회장은 논산시 농촌지도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합친 첫발을 내딛었다.

농촌지도자회는 논산시 15개 읍면동에 850여 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는 농업·농촌의 핵심주체이다.

논산=김성구기자



(사)환경상생포럼, 제1회 상생 어울림·상생 클린데이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으느정이거리에서 개최



세계 인류는 기후변화, 환경변화 및 생태계 파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미래 시대뿐만 아니라 현세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이 현실이다. 우리 주변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바르게 조화하여 자연은 자연 그대로, 인간은 인간답게 공존 상생발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설립취지를 밝혔다.

포럼은 ▲환경 생태계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및 토론회 등 각종 세미나 개최 ▲환경·생태·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교육사업 ▲환경·생태·상생발전의

김태선기자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제17대 BBS 박완순 공주지회장 취임



원 선서 및 위촉장 수여식과 신임 집행부 소개 등이 진행됐으며, 2부 행사로 다과 및 자족연이 이어졌다.

제17대 박완순 회장은 취임 시를 통해 “BBS 이념에 충실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전 유행성을 위한 청소년 단체로서의 역할에 힘쓰겠다.”며, “청소년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우리 BBS 공주지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BBS 공주지회는 우리 지역 청소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반세기 동안의 역사를 이어오며 수많은 청소년들과 1:1 자매결연 및 선도, 후원 등을 해온 우리 지역 청소년 대표 단체”라며 “신임 박완순 회장이 청소년들에게 더 밝은 등불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윤구병 공주시의회 의장은 축

해 “BBS 공주지회는 우리 지역 청소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반세기 동안의 역사를 이어오며 수많은 청소년들과 1:1 자매결연 및 선도, 후원 등을 해온 우리 지역 청소년 대표 단체”라며 “신임 박완순 회장이 청소년들에게 더 밝은 등불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윤구병 공주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BBS 수탁기관인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공주시에서 유일하게 학교밖 청소년들에 게 검정고사반을 운영해 수업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에게 진학의 기회와 사회 진출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고 치하했다.

공주=성승범기자



서천특화시장 피해 복구 성금 전달
충남도는 29일 도청 외부전경실에서 연예인 이상용 씨와 NH농협은행으로부터 성금 총 1억 1000만 원의 회재 피해 복구지원 성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이상용 씨는 1000만 원을, NH농협은행은 1억 원을 각각 기탁했으며,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로 삶의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산=김성한기자

기고



김종복
(본지 논설위원 · 대전서천군민회장)

우리 사회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다.

첫째, 지도자의 생각과 집단 성원의 생각이 거리감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이다. 지도자의 생각과 집단 성원의 생각이 같은 경우엔 지도력이 강해지나, 집단 성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그들은 지도자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도자들이 집단 성원보다도 나은 사람이나 아니라고 객관적 평가를 받을 때이다. 집단 성원 중 누구보다도 훌륭한 능력과 해박한 지식으로 타의 존경을 받아야지 별 불일 없는 무능력자로 알려지면 지도자 교체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셋째, 집단 성원 전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라고 평가 받을 때이다. 자기 일신을 위해 몇몇 특정인 특권 부류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 받으면 반발을 시게 된다.

넷째, 허세와 만용을 부리며 늘 일하는 척 과장하는 사람. 조직의 노하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비생산적 과시형이다.

셋째, 비정직 업무 추진과 안 일한 무사주의의 팽배로 근시안적 사고형의 사람.

넷째, 직장을 나그네처럼 드나들면서 지위를 악용하여 이권행위를 일삼는 사람.

다섯째, 직원회이나 상호 의견

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소인배적인 발상이다. 자리에 연연하여 밭벼등 치면 불명예퇴진을 강요받는 것이다. 사람이 지리를 만드는 것이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이른바 '좀비족(Zombie族)'을 살펴보자.

평소 배우고 뒤았던 지식을 참의적으로 발휘하기보다는 그저 호구 지적으로 그저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만 일상을 대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더러 있다.

다음과 같은 부류는 좀비족형에 속한다.

첫째, 상시에게는 알탕알탕하고 부하에게는 귀신인 사람. 직장에서 신변을 유지하는 것이 곧 보람이라는 사고방식의 소유자이다.

둘째, 허세와 만용을 부리며 늘 일하는 척 과장하는 사람. 조직의 노하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비생산적 과시형이다.

셋째, 비정직 업무 추진과 안 일한 무사주의의 팽배로 근시안적 사고형의 사람.

넷째, 직장을 나그네처럼 드나들면서 지위를 악용하여 이권행위를 일삼는 사람.

다섯째, 직원회이나 상호 의견

교환시 진보적이고 혁신한 대인책이 있음에도 가민이 있다가 대세가 기우는 쪽으로 부화뇌동하는 사람. 중대 없는 해바라기형이다.

여섯째, 철저한 이중인격자인 사람. 동료들끼리의 술좌석에서 어울리는 척하고는 일단 상사와의 조우가 생기면 비밀 보고를 하는 아부형이다.

이와 같은 것이 대략적인 좀비족에 속한다.

훌륭한 지도자 밑에 참신한 후진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지도자라는 자리를 자신의 도구화 내지는 명예나 인기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 그 자리는 자신이 아니면 운영이 안 된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자리 자체에 대한 병적인 미련을 버리고, 참신하고 의욕 있는 후진에게 미련 없이 자리를 넘겨줄 줄 아는 현명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사회도 그런 지도자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짧고 유능한 새싹을 크지 못하게 경직시키는 구태의 의연함도 버려야 한다. 훌륭한 지도자가 사회를 이끌면 사회도 그들을 탄탄하게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사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하는 여가부

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양육비로 고통 받는 부모에게는 너무나 반기운 소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지금도 양육비 긴급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시적이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뿐이고 그 후에는 또다시 양육비 고통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다. 긴급지원금 제도로 지원을 하고 난 후 국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이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가부가 긴급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제 도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인데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너무나 부적임한 일이다. 양육비가 없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대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뜩이나 저출생으로 국가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중한 미래 주역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다음에 양육비를 부모에게 받

민생 법안 나 몰라라 하는 21대 국회의 직무유기

여야가 겉으로는 민생 최우선'을 외치면서도 정작 민생 법안 입법에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정쟁에 매몰되면서 일손을 놓은 상태다. 여당과 정부는 법안 처리를 위한 설득이 부족하고, 거대 야당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면서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 사실상 국회의 직무 유기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과 기업들에게 돌아간다.

여야의 협상 불발로 83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무산됐다. 이 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영세 사업주들은 2년 유예를 눈물로 호소했으나, 여야는 강 대 강 대치와 네 텃 광방'만 벌였다. 국가에너지 안보에 꼭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 법은 1년 넘게 결론을 못 내면서 폐기 위기에 놓였다.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기간까지 감안해 방폐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여당 안과 설계수명까지만 반영하자는 야당 인의 대립 중이다.

민생 법안의 우선순위를 놓고도 여야의 의견이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 사제법 제정안 등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절에 절하게 대립돼 있지만, 협상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구성한 여야의 '생전 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는 활동 정지 상태다.

국민들과 산업체는 민생 법안 처리 지역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안보 및 경제 위기는 심각하다. 민생 법안 처리가 더 미뤄지면 안 된다.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1월 임시국회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시간이 없다. 여야는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 다음 달 1일 예정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그 정도 염치는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예산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화상수술비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등 보장 항목 확대

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 안전 보험을 30일부터 시행한다.

군민 안전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피 보험자가 되며, 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4년 1월 30일부터 2025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상해 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실버존 사고(만65세 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등 총 20종으로 타 보험 기입과 관계없이 종복 보장

특히 올해부터는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후유장해와 같이 행정안전부 기업권고 항목 및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사고를 당한 군민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 안전보험 전달창구(1644-9666)에 청구하면 보험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보험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김용현 법학박사의

생활 속 법, 또는 우리들 이야기



김용현 시인

(법학박사 · 전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삶의 여유

느 최고의 단계에 오르면 그 위에 또 다른 최고의 단계가 있는 법이리니, 이 '최고의 단계'라는 것도 절대적으로 최고가 아니고 상대적 이어서, 그 어떤 단계에서 보면 그 단계에서 도달할 최고(단계)라고 할 것인바, 어떤 책이나 이론, 어느 고서의 문장을 끈이곧대로 문자대로만 토씨 하나 틈틈이 없이 믿고 따르거나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가 틀림없이 무지하거나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어떤 책이나 이론, 어느 고서의 문장을 끈이곧대로 문자대로만 토씨 하나 틈틈이 없이 믿고 따르거나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가 틀림없이 무지하거나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이 것들도 말이나 문장 그대로가 그야말로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물이나 상물들은 물론, 그 무엇의 부존재까지도 모두 변하는 것이라니 개개체들은 주어진 생명 열심히 살되 여유를 가지면서 슬기롭게 극복한 뒤 처음 설정하고 의도한 목표에 이르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또 앞에 보이는 다음의 단계, 즉 그야말로 다음으로 목적한 최고의 단계를 향해 계속 진전하여야 할 것이다.

한 세계에 들어가면 그 세계에는 다른 세상이 있는 법!! 재언하면 어

한다. 이런 때는 잠깐 여유를 가지고 몸과 마음을 안정시킨 뒤에 올바르게 행(위)해야 한다는 것을 다진 뒤 기어이 해내야 한다.

더구나 특별히 할 일이라면 미리 하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일은 할 수 있는 때에 처리해야 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좋다. 급하게 할 일은 즉시 해야 하며,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더라도 할 일을 미루거나 하더라도 늦게 하거나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짚찝하고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일을 다음에 다시 해야 하니 번거롭기 그지없는 것이 되며, 시의적절하게 처리하는 데에 아직 할 시간이 있다면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할 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면 더욱 좋은 것이다.

할 일은 할 수 있는 때에 해야 하고, 해야 할 모든 것을 시의적절하게 처리하는 데에 아직 할 시간이 있다면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할 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면 더욱 좋은 것이다.

예상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및 각

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 안전 보험을 30일부터 시행한다.

군민 안전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피 보험자가 되며, 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4년 1월 30일부터 2025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상해 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실버존 사고(만65세 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등 총 20종으로 타 보험 기입과 관계없이 종복 보장

특히 올해부터는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후유장해와 같이 행정안전부 기업권고 항목 및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사고를 당한 군민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 안전보험 전달창구(1644-9666)에 청구하면 보험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보험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시의 향기



김정희 시인의 '코오롱 연기'

등대

넓은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외로운 등대
아둠을 밝혀 길잃은 배에 생명의

신호를 보내주고 지름길로 인도하는 등대
간밤의 폭풍우와도 맞서고
된서리에도 믿음직하게 그곳을 지키고 있다

그림자

가을이 떠나려 한다
뒷모습이라고 쓸쓸하게
아쉽다 바람에 뒹굴며
저리 우는 낙엽이

이 밤 가을을 달래며
한잔 소주가 생각나던 날

동대의 소중함은 길을 잊어 본 자는 알리라
나간 배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노심초사 어둠을 밝히는 등대
인생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스승님 같으리라

오랜 자기와 세상 고락을 꼭꼭 채우고
울분과 희열을 삼킨다
골목길 가로등 밑
그 외로운 밤
가을 스산한 기운이 돋나
비틀거리는 벌걸음 따라
말없이 동행하며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어 이 밤 와롭지 않다
나의 벗 그림자가 있어

시의 향기



박정기 시인의 '순정에 빠진 시'

그림자

가을이 떠나려 한다
뒷모습이라고 쓸쓸하게
아쉽다 바람에 뒹굴며
저리 우는 낙엽이

이 밤 가을을 달래며
한잔 소주가 생각나던 날

골목길 가로등 밑
그 외로운 밤
가을 스산한 기운이 돋나
비틀거리는 벌걸음 따라
말없이 동행하며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어 이 밤 와롭지 않다
나의 벗 그림자가 있어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naver.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비른신문

대전투데이

16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대전투데이



사단법인 환경상생포럼
Environmental Co-prosperity Forum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과 상생 어울림 제 1회 상생 어울림 · 상생 클린데이

제1회 상생어울림 · 상생클린데이 행사를 주최합니다.

으능정이 거리 환경정화활동과 더불어 음식나눔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행사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3일 오전10시30분	으능정이 거리	상생클린데이 환경정화활동
2024년 2월 3일 오전11시30분	으능정이 거리	상생어울림 음식나눔봉사

- ◆ 주최 : 환경상생포럼, 대전광역시 환경노동조합, 대전은행동상점가상인회
- ◆ 같이합니다 : 사)소상공인성장지원협회, 중구청, 대전투데이
- ◆ 협찬합니다 : 성심당, 강남교자, 호광건설, 미래보증금융 대전지사, 성경개발

사단법인 환경상생포럼
공동대표 강석화, 오승근

